

‘난방비 걱정 없는’ 제로에너지 주택 완공

298가구 준공·입대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60% 에너지 절감 효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기 김포, 오산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이 적용된 임대형 단독주택 298가구가 완공돼 입주자를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의 준공식을 세종시 임대형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에서 열었다.

세종 행복도시 1-1 생활권에는 60가구(전용면적 85㎡),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120가구(85㎡),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79㎡)가 각각 공급됐다.

이는 단독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 서비스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거비를 경감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기술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60%가량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들 주택에는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임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인 세종 로렌하우스 준공식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단열재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주택은 태양광 패널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마당을 갖추고 있고 전문 임대관리 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도 제공

한다. 세종시 단독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에 제로에너지 2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두 곳의 주택은 에너지효율 1++에 제로에너지 5등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 이들 주택을 조성했기에 유형별로는 단기(4년) 민간 임대료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입주자 소득 자격이 별도로 없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투입됐기에

노부모 부양가족과 신혼부부에게는 물량의 30%가 특별공급됐다.

이들 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됐다.

세종 단독주택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48만원에 공급됐으며 김포는 2억3천만원·48만원, 오산은 2억·46만원이다.

국토부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동탄2신도시와 부산, 세종에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특위 구성 놓고 시의회-시민단체 ‘갈등’

여수시민협 “재구성해야” ...시의회 의장 “의원 모욕”

여수시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인 웅천지구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특위 구성을 놓고 시민단체와 여수시의회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 반박하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여수시민협회의 주장은 “시의회 비방과 의원 모욕으로 왜곡됐다”고 반발했다.

서 의장은 “웅천특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위원도 회의의 규칙에 따라 의장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가 한때 부결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특혜 의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 뒤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

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장은 또 “특위 구성에 반대한 의원이 들어간 것처럼 시민단체가 왜곡하고 의회 활동을 폄하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몰염치하게 특위 구성을 반대한 의원이 들어가 있고 상임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여수시 최대 택지구인 웅천지구는 2004년 착공, 2016년 완공됐으며 모두 280만여㎡ 규모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말 9명으로 웅천 특위를 구성했으나 특위 구성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모델 하우스 내부 모습 /우미건설 제공

공동체 관리 ‘사회주택’ 4년간 8천채 공급

전체가구 40% 이상 주거취약계층에 공급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도 누릴 수 있다.

2천호는 서울시가 1천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

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완판

청약 평균 2대 1 경쟁률

우미건설이 계약 시작 보름 만에 100% 계약률을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서 공급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가 15일 만에 완전판매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달 초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으며, 정당계약에서도 수요자 인기를 확인해 드러낸 바 있다.

해당 단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지하

철 1호선 검단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예정돼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중심상업용지가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천268가구로 2022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단지 내 상가도 공급할 계획에 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단지 내 상가는 지하 1-지상 2층으로 도합 70실(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iclemency@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SolaWin Q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총점검의 날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